

다.⁶⁴⁾ 아인쉬타인은 “전쟁은 소아병”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한 마디로 의로운 전쟁 이론은 평화를 만드는 의지가 극대화된, 전쟁 정신을 진압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삼상 17:47) 전쟁 행위의 뜻을 조직적으로 정립한 전쟁 방지 이론인 것이다.

64) Craigie, op. cit., p. 18.

교회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적 조직 관리(II)

박 차 상

서론

한국 기독교 선교 2세기를 향한 시점에 서서, 지난 100년간을 돌이키며 결산하는 데 있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교회 행정의 부재(不在)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많은 인원과 재정을, 그리고 좋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회 행정의 3부분—인사 행정, 재무 행정, 조직 관리 행정—가운데 조직 관리 행정면을 서술하려고 한다.

교회 행정의 개념

1. 교회의 본질

존재는 행위에 선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 자체, 즉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교회 행정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철저하고도 계속적인 연구를 전제로 한다. 편의상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는 성경적 개념을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1)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개념은 구약성경의 중심개념으로서 구약성경은 교회의 기원(Origin)이 될 만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택한 백성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이다.¹⁾ 이 개념이 교회의 본질의 핵심이며, 신약성경에서 이 개념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아래 세 가지 기본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 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 ②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 ③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의 공동체이다.
- 요컨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

1) Alvin J. Lindgren,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박 근원 (역) 「교회개발론」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7), pp. 36-41.

할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 천직의 과제가 선택받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개념은 신약성경에 포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교회 본연의 모습을 바로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한다.²⁾

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본질이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과 그 선교적 사명을 결정하신 것이다. 이 말은 교회에는 교회 행정이 인정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할 소임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② 교회의 공동적 일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비유는 교회 안에 공동적 일치(Corporate Unity)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몸의 각 지체의 상호 관계성은 몸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각 지체가 긴밀하게 상호의존하며 필요함을 나타낸다.

③ 그리스도 사역의 연장으로로서의 교회

2) Ibid., pp. 41-52.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도구나 대행 기관으로서의) 몸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조직된 기구적 구조로서의 교회의 필요성이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수 없다. 둘째는 기구적 구조 그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④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 개념은 교회가 살아 있는 유기체이지 굳어 버린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를 자체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유기체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살아 있기 때문에 조직체로서가 아니라 유기체로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교회의 본질은 결코 정적인(static) 용어로서 표현되어서는 안되고, 역동적(dynamic)이고 변천적(changing)인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구속적 사랑의 친교로서의 교회

이 개념은 상술한 두 개념에 암시된 것으로 교회는 구속적인 사랑의 친교 공동체라는 것이다.³⁾ 이 점이 구현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상호간의 관계성이다. 이런 관계성은 사랑을 주고 전달하며 또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Ibid., pp. 52-57.

이상과 같이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는 교회 행정의 목적 실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한 과정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교회로 하여금 그 본질을 성취시키고,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교회 행정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초가 될 것이다.

2. 교회 행정의 원리

(1) 교회 행정의 개념

교회 행정에 대한 논의는 행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정한다'(administer)는 말은 라틴어 administrare에서 온 말로서 문자 그대로는 '봉사한다'(to serve)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라틴어의 어원은 현대 교회 행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봉사한다'는 동사를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위한 봉사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더 아담스(Arthur Adams)는 목회 행정(Pastoral Administration)에서 행정에 관한 가장 간결한 정의를 "행정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고 내렸다.

린그렌(Alvin J. Lindgren)박사는 "목적 있는 교회 행정은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발견을 포함하며, 교회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모든 자산(資産)과 인적 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대한 일관성있고 이해력 있는 태도를 포함한

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트렉커(H.B. Trecker)는 그의 저서인 「행정의 집단적 진행(Group Process in Administration)」이란 책에서 “행정은 회중(Congress)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며, 조직체들의 유기적 관계를 수립하며, 의무를 분배하고, 모든 계획과 사업(Program)을 지휘하며, 달성한 바를 재검토하는 일의 진행방법이다”라고 정의하여 회중의 행정의 총체적 참여(Everybody participate)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회중과 함께’ 또는 ‘유기적 관계’ ‘의무의 분배’ 라는 말을 통하여 교회 행정이 지나는 바 기본 개념을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교회 행정은 교회 전체를 동원해서 그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⁴⁾

(2) 교회 행정의 원리

교회 행정의 본질이 시사하는 대로 교회 행정의 건전한 방법은 하나님 중심적인 동시에 인간 지향적인 양극 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된다.⁵⁾

양극과 음극이 있는 건전지에 있어서 둘을 연결해야 전력이 나오는 것처럼 목적 달성을 위한 교회 행정은 하나님 중심적임과 동시에 인간 지향적이어야 한다. 교회 행정은 이 양극 사이의 자력(磁力)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 수행되어야만 효과적이고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적(God-Centered)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 선

4) Ibid., p.59.

5) Ibid., p.60.

교의 근원과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지향적(Person-Oriented)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만민에게 자기 사랑을 선포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어떤 개념이나 기관이기 이전에 인간들을 섬기는 사역(Ministry to Persons)이다. 인간 지향적이라는 말을 인간 중심적이라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인간 중심적인 행정은 사람들의 욕구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행정의 규범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 양극 원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회 행정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며, 교인 전체의 투표나 교단의 성명서로써 그것을 뜯어 고칠 수 없다.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면 일종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 것이다. 중세기에 있어서와같이 제도 중심적 교회가 되든지, 오늘날 많은 교회와같이 프로그램 중심적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등한시할 때 교회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수없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교회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① 교회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실제적으로 이 말은 교회의 성공적 활동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일마다 많은 교인이 참석한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라고는 할 수 없다. 출석 통계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보다도 인간들을 하나님에게 접근시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행정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는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Lordship)을 높이는 일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그런 교회들은 사회적 어려운 문제를 대외적 체면이나 재정적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기독교인다운 증거를 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의 척도로서 생각하고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 그것과 구별할 수 없이 될 유혹을 물리칠 것이다.

②하나님 중심적 행정은 성경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을 하는 사람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목사가 주도하는 성경 연구, 성경 분반 토의, 강단의 설교, 교회 교육, 기도와 친교 모임, 심방과 목회, 그리고 평신도의 증거와 봉사를 위한 기회 부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교회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갖게 할 것이다.

③하나님과의 산 인격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이해만 갖고는 안된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결단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인간적 결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 행정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점이 중요하다.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신앙적 결단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작은 친교 집단의 활동, 계속적인 목회와 상담, 선교 사업과 봉사의 기회 부여 등이다.

④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검토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은 만인을 위한 자기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육신(Incarnation)의 이유와 의미를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고 그

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에서 찾게 된다.⁶⁾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안으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셨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즉, 교회는 세상에서 빠져 나온 수도원에 갇힌 성도들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을 섬길 사람들의 친교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행정을 하는 사람은 교회라는 기관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지역 사회와 세상을 섬기도록 교회를 훈련하고 지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② 교회 행정은 인간 지향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말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인간들 속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회 생활의 모든 활동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자기 사랑의 본질과 깊이를 인간으로 하여금 의미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제 인간이 교회의 주요 관심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인간 지향적 교회 행정에 있어서는 인간이 교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인간과 그들의 요

6) 요 3:16.

청이 교회 행정의 기본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할 척도가 있다. 교회는 그 모든 활동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 판단의 표준은 예배, 설교, 교육 프로그램, 교회 안의 소집단 활동, 심방과 목회,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의 모든 다른 경험 등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 지향적 교회 행정의 의미를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의 실제 문제에 대한 그 적용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①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은 분명한 이유를 안목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지, 사람이 프로그램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한다. 실제로 무슨 프로그램을 시작하든지 그 유일한 활기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데 있다.

오늘날 교회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할 때 인간 지향적인 교회 행정의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바쁘게만 몰아대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속적 경험을 주지 못하고 만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중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지향적 방법은 교회 생활의 조직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깊은 차원을 더해 주고 있다.

② 인간 지향적 방법은 복음을 전달하는 방편으로서의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랑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 원리를 가장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랑은 인간이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만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 의미는 대인 관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것은 교회 행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해주고 있다. 목사 자신이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이 그가 기

능적으로 하는 일이나 입으로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다. 목사는 자기의 대인 관계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전도하고 있다. 개인적 상담, 각부 모임, 강단에서의 설교와 사회적 접촉, 그리고 어느 모임에서 사회자로서 일을 하게 될 때마다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목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회적·개인적 접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는 것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교회 생활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는 교회 행정을 위한 혁명적 개념이 아닐 수 없다.

③ 인간 지향적이라는 개념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목회와 대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목회 생활에 있어서 목사가 일 대 일로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회이다. 이것은 기독교 사랑에 대한 의의있는 해석과 가까운 인간 관계를 통한 그 이해를 위해서 다른 데서 찾아 보기 힘든 기회이다. 여기서 '인간관계의 언어'가 기독교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해 주고 있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해 주고 있다. 좋은 의미에서의 교회의 선교와 전도도 목회로 다져진 인간 관계를 통해서 잘 되어질 수 있다.

④ 소집단의 모임을 구속적인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이 점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평신도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두고 싶다. 행정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모임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의 신앙도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다. 현명한 행정가는 인간 지향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프로그램과 집단 활동에 있어서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교회 행정의 절차

일반 행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행정에 있어서도 행정 책임자는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자원과 지도력을 동원해서 각기 그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신약 시대의 교회도 이 사실을 일찍 발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의 원시적 형태를 수립한 바 있다.⁷⁾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문화적·사회적 구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교회 행정가는 기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행정 정책에 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더 생긴다. 이제 모든 자원과 활동을 조정하는 행정 절차를 검토해 보자.

1. 해야 할 일의 인식
2. 계획하는 일
3. 조직하는 일
4. 실천에 옮기는 일
5. 평가하는 일

이러한 행정 절차는 에릭슨(Erik Erikson)의 저서「유년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에 진술한 개성 발달의 여러 단계와도 같은 것들이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여러 단계들이 역동적으로 공존하며 단계마다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효과적인 행정은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서 한 단계가

7) 행 6:1-7; 딤후 3장; 딤후 1:7-9; 막 6:7

생략되거나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 과정의 결함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위에 제시한 행정 절차의 제단계를 검토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각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행정 과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유의할 점은 모든 아이디어와 방법을 채택하는 기준을 교회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인간 지향적 교회 행정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 해야 할 일의 인식

행정 절차의 첫째 단계로 우선 한 집단의 중심 목적과의 관련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행정가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우선적인 관심은 그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현명한 행정가는 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예비적 평가에 있어서도 교회의 관심있는 평신도 소집단을 참여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해야 할 일 같으면 그 다음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인 전체에게도 과연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⁸⁾ 아울러 정말 필요한 일을 행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해야 할 일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즉 어떤 프로그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문제 자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2) 계획하는 일

8) Alvin J. Lindgren, op. cit., pp.72-75.

행정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제기되고 인식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이다. 그 계획이 잘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소위원회에 넘겨지겠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 제안을 받는 것이 좋다. 교회는 제사장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착상과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근년(近年)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경험으로 배운 진리의 하나는 무슨 일을 계획하는 데나 적용되는 교인 최대참여의 원리이다.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과 같은 통속적인 일에도 적용된다. 만일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데 동참했다면 그 해결책을 간구하는 데 있어서도 건설적 제안을 해오게 마련이다. 나아가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뒤에 그 일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 절차에서 유의할 것은,

① 교인들이 공인하는 문제의 분명한 진술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② 계획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 사실은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계획이란 현재에서 미래로, 기지(既知)에서 미지(未知)의 세계로 우리의 생각을 투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주어진 상상력을 활용하여 대책 방안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인들의 상상력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④ 마지막으로 사실의 파악과 전문적인 토의가 끝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방안의 모색에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활용한다면, 이제 할 일은 여러 가지 제안(提案)과 제의(提議)를 좁혀 가는 일이다.

(3) 조직하는 일

행정 절차의 세 번째 단계는 조직하는 일이다. 교인들로 하여금 수집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통합하여 준비하도록 조직하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그 사업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 계획과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과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이다. 그 조직의 실제적인 정도와 형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아주 다를 수 있다. 조직화 절차의 다른 면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조직화의 내용: 조직을 하는 데 맨처음 알고 결정해야 할 일은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의 시기: 사업의 성패를 위해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사업에 대한 기본적 시기가 결정된 다음에 그 사업 전체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조정해서 교회의 전체 생활에 상충(相衝)이 없도록 하며, 그 사업이 교회 전체가 하는 사업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③ 조직의 대상: 누가 이 일을 책임 맡아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획 수립의 첫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소위원회나 그 일을 책임 맡을 사람의 수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동원이 가능한 교인들의 수를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④ 비상 대책: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이라고 해도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의 비상 대책이 서있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아뭏든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과 한 사람이 다른 과제를 맡아야 할 경우를 처음부터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⑤ 정확한 기록: 계획하고 조직하는 단계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간표, 위원 회원과 그

책임, 그들의 훈련 모임 등인데, 이런 것은 평가시에도 사용되지만 지도자의 교체가 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이다.

(4) 실천에 옮기는 일

이 단계에서 행정 책임자의 중요한 역할은 이미 계획하고 조직한 사업 활동에 대한 반응을 촉진하는 일이다.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대사업가적 자세도 필요하고, 합리적 방법의 동원이 중요하다. 특히 어떠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행정가의 인간적 관계가 그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행정 책임자가 교인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 부여 요인의 다른 하나는 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 전달이란 점이다.

즉 행동에 옮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교인 상호간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 행정하는 사람의 주의를 요하는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을 위해 일할 사람을 일찍 확보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목회자가 직접 시간을 내서 이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훈련함이 좋다. 그리고 필요 인원보다 10% 더 뽑아 충원 계획(充員計劃)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유능한 지도력과 좋은 훈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②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분명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③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 책임자는 항상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개인적 접촉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

④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여 다른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한다.

⑤ 교인들에게 늘 현재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은 계획 실천에 도움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보고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5) 평가하는 일

지금까지의 여러 행정 절차는 시기적 순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평가만은 지속적인 절차이다. 행정 절차의 각 단계마다에서 되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교회 생활의 모든 국면(局面)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는 행정을 맡은 사람의 근본적인 책임이다. 교회라는 개념의 분명한 이해와 그것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적이며 인간 지향적인 교회 행정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제안이든지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회 행정가는 또한 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방법과 방편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은 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과 그 선교적 사명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교회 조직의 성격

1. 교회 조직의 목적과 목표

현대 사회는 조직 사회이며, 인간은 조직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운명적으로 조직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를 조직 사회라

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 생활의 대부분이 협동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도 조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은 인간이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발전의 동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조직의 목적과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있다. 여기서 '성숙'이란 현존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⁹⁾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 이해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 교회 조직은 신자들을 자라게 하고 책임을 맡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영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는 것은 그들을 성숙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봉사하는 가운데서 자라도록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교회 조직은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 교회 조직의 원리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업 체제¹¹⁾라고 정의하는 경우 조직의 5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분업, 총합, 계층제, 총율의 범위, 명령의 통일의 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9) Ray C. Stedman, *Body Life*, 홍성국(역) 「그리스도의 지체」(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pp.142-143.

10) Ibid., pp.145-146.

11) 박동서, 「한국행정론」(법문사, 1978), p.192.

그런데 교회 조직은 계획을 목표의 방향으로 운반하는 차량이다. 이는 또 구성원들의 상호협조적인 노력을 위한 기계 장치를 제공한다. 조직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교회 내의 조직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조직 자체가 목적으로 되면 자체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속에 입각하여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단으로서의 조직

전술한 바와같이 조직은 항상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조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에 대한 가장 우선되고 중대한 원리는 목적 달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상 그 조직을 통한 교회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조직

교회는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필요에 의해서 조직되어야 한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피터스(Dr. George Peters) 박사는 '사람이 있는 곳에 기능이 있고, 기능이 있는 곳에 형식이 있다'¹²⁾고 말했는데, 교회의 기능도 조직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조직의 예를 들면 사도, 장로, 집사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등이 있는데 이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발생된 직분들인 것이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직하

12) Gene Getz,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임성택(역) 「현대교회 성장학」(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pp.202-203.

고, 그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교회의 책무인 것이다.¹³⁾

(3) 단순화된 조직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것이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 복잡한 조직과 형태는 종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조직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회중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규모만큼 최소한의 크기로 조직되어야 한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일관성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며, 조직을 유지하는 데 지도자의 시간과 창조적 능력이 더욱 소요되기 때문이다.¹⁴⁾

(4) 유동성있는 조직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는 조직의 구조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고정된 방법만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성경이 조직적인 교회에 관하여 형식과 자유,¹⁵⁾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기구적으로 조직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표준으로 명하신 성경적 형식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넓은 영역이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따라서 성경이 진술한 한계 조건들은 절대 표준이 아니며, 시대와 장소의 차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동에 대처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¹⁶⁾ 예를 들면 광야를

13) Harold L. Picket, *Ten Principles of Church Growth*, 조 해수(역) 「교회성장의 열 가지 원리」(서울: 예수교문서 선교회, 1981), p.144.

14) G. E. Ludwig, *Building An effective Youth Ministry*, 박 주익(역) 「청소년 목회론」(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3), p.64.

15) F. Schaeffer,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김 재권(역) 「20세기 말의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p.85.

16) *Ibid.*, p.94.

이동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만들었던 조직은 가나안 복지에 정착하였을 때에는 변형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기 위해 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조직은 예루살렘 박해하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사도행전 15장의 '율법과 은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¹⁷⁾ 웨퍼 박사(Dr. Francis Schaeffer)는 조직의 형식과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과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비절대적 표준을 절대적 표준으로 삼는 것은 기구적으로 조직된 교회의 고립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⁸⁾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은 절대적인 것과 유동적인 것을 구분함으로써 고정성과 폐쇄성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3. 교회 조직의 기능

(1) 사도적 기능

사도들은 교회의 초석이며 골격을 이루는 일을 했다. 사도들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전모(全貌)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사도들이 선포한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다. 사도적 은사가 오늘날에는 새 교회를 시작하는 개척 선교사들에게 그 일부가 주어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교회에 신앙의 전모를 심어 주는 데 기여하게 된다.¹⁹⁾

(2) 선지자적 기능

선지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17)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 달천(역) 「교회 성장 원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p.205.

18) F. Schaeffer,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김 재권(역) 「20세기 말의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p.95.

19) Ray C. Stedman, *op. cit.*, pp.87-89.

사람이다. 선지자의 은사는 사도들의 은사와 다른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체적 진리 체계를 권위있게 선포하였던 반면, 선지자들은 그 권위있는 말을 해석하며 진리를 설명함으로 그 진리를 아주 분명하고, 활력있고 힘있게 하였다.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러한 선지자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겠다.²⁰⁾ 이와 같은 선지자적 기능은 예배와 교육과 증거를 통한 말씀 봉사로 수행되어진다.

(3) 전도자적 기능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의무가 있으나 모두가 전도자적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전도자적 은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적절한 어휘로 복음을 전달하는 특별한 은사이다. 이런 은사를 받은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실의 이유를 설명할 줄 알며, 거둬나게 하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이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버려 두시지 않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값진 희생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도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들려 주게 되는 것이다.²¹⁾

(4) 목사적 기능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의 생명을 유지하며 그 생명이 원기있고 생동력이 넘치게 보존해야 하는바 이것은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다.

목사는 교회의 책임자로서 그의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본을 보여야 한다. 그들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친 대로 실천함으로

20) Ibid., pp. 90-91.

21) Ibid., pp. 91-93.

써 권위를 세워야 한다. 또 그들의 권위는 그들의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영성을 잃으면 권위도 상실하게 된다.

이상의 네 가지 기능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역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의 기원과 해석에 관련되어 있고, 전도자와 목사는 개인 생활에 있어 말씀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 전도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고, 목사와 교사에 의해 삶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²²⁾

4. 교회 조직의 형태

(1) 교회 조직의 특성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다른 조직체와는 달리 몸으로 상징되는 유기체적 기능이다. 몸의 모든 부분은 서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다른 조직체는 개인의 결합으로부터 힘을 나타낸다. 그러나 몸은 생명의 공유로부터 그 힘을 유출해 낸다.²³⁾

그리고 몸의 생활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모든 지체가 성숙의 과정에 공헌하며, 각기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몸의 기능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되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이 필요하다. 사실 '새운다', '성숙한다', '성숙'이란 단어들은 기능적인 몸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다.

둘째,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다. 로이 버카트(Roy Burkhardt) 박사는 영적 공동체의 개념을 다음과같이 말했다. "온전한 진리와 사랑 가

22) Ibid., pp. 93-99.

23) Ray C. Stedman, op. cit., pp. 36.

운데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로 구성된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참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²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 주는 구속적이고도 영적인 공동체”였다.²⁵⁾

세계, 교회의 권위의 본질은 교인들에게 있다.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그 지체인 교인들에게서 권위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인들은 몸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가 교리와 실천 양면에서 최종적 권위를 가지며, 교회의 최고 권위자라는 관념이 무의식중에 받아들여지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로들의 권위는 명령을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동의를 얻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의 본질인 것이다.²⁶⁾

(2) 기성(既成) 교회 조직의 분석

교회의 조직적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는 기존하는 범인간적인 상관 관계에 대한 조심스럽고도 분석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다.

첫째 단계로 교회 구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교회 생활의 네 가지 영역, 즉 합법적·재정적·교육적·영적 부분의 운영을 위한 최대한의 권한을 허용하는 집단에 대한 구성을 파악할 필요

24) W. S. McBurnie, *The Search for the Early Church*, 박 만수 (역) 「초대교회 연구」(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80), p. 203.

25) Ibid., p. 207.

26) Ray C. Stedman, op. cit., p. 97.

가 있다. 특히 영적 부분은 포괄성을 지니지만 다른 부분과 상호배타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에 관련된 직원과 회원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영적 부흥을 위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교회 생활의 일반적 영역에 대한 책임있는 집단이 식별된 후에는 교회 조직을 파악한다. 통상 사무위원회, 당회, 이사회, 교회 교육 위원회, 집사회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이들 각 집단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교회 조직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위원회와 협의회 등은 이런 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 단계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별·기관별 분석을 한 후에는 교회 내에 존재 가능한 다른 조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일 교회 학교, 청년회 그리고 다른 교회 조직의 사업과 관련된 구성 기관을 뜻한다.

네째 단계는 모든 중요집단과 인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 관계를 가능한 명백하게 도식화해서 책임과 의사 전달의 계통이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다.²⁷⁾

(3) 교회 조직 구조의 유형

교회 조직 구조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²⁸⁾

첫째 유형은 기계적 구조이다. 이것은 힘, 통제, 전문화 등의 중앙 집권화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위로부터 규율이 밑으로 전달되며, 그 권한의 위치가 명백하다. 찰스 페로우 (Charles Perrow)는 「조직분석 : 사회학적 개관」(Organizational Analysis: A Sociological View)에

27) Robert K. Bower, *Administering Christian Education*, 신 창기(역) 「기독교 교육행정의 원리와 실제」(서울: 성광 문화사, 1983), pp. 34-35.

28) Lloyd Perry, *Getting the Church on Target*, 김 영백(역) 「목회자와 교회행정」(보이스사, 1980), pp. 100-102.

서 이것을 관료주의적 모형이라고 불렀다. 즉 조직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꼭대기에 있는 개인만이 알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자들은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일할 뿐 결코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은 효율적 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조직이 점점 더 커지고 중앙집권화되면 될수록 실책에 대한 결과가 더 널리 파급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현재 여러 크고 독립적인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목사가 전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사무원과 구성원들은 이유를 알 필요 없이 오직 일할 뿐이다.

둘째 유형은 인간 관계 구조(The human-relations Structure)로서 이는 개인보다 집단과 그 단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집단 사이의 연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소속하려는 요구와 모든 사람에게 우호적이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조된다. 지도자는 단순히 일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지원자가 되고, 업무자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지도권은 개인적인 목사직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은 성장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는 구성원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쏟아 세상의 요구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 목사는 거시적이기보다는 미시적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유형의 조직은 폐쇄된 집단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째 유형은 유기적 조직으로 이 유형은 정보와 지식을 지도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통해서 분배한다. 따라서 의사전달이 수직적·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특별히 개인의 존엄성, 창조적인 자유, 자아 발전 등의 세 가지 원칙이 강조되는데 지도자는 자신의 사람들과 같이 서있으며 이야기하고 듣고 배우며 세상과의 동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한편 아담스(Adams)는 그의 저서「목회 행정」(Pastoral Administration)에서 조직, 혹은 구조의 분류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중앙 조직 : 사무위원이 위원회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표상 중앙집권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위원회는 예배, 복음 전도, 기독교 교육, 관리 재정 등과 같은 것을 맡아보며, 그들이 수행할 필요가 있고, 또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조직될 수도 있다. 많은 교회 조직이나 구조들은 하나의 중앙위원회를 가지며, 각 위원회 임원들이 이 중앙위원회의 임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 위원회가 교회의 모든 위원회와 관계를 가지며, 가끔 그들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은 위원회 집권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② 특수한 사회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형성된 조직 : 다방 선교가 이러한 유형의 조직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는 청년들에게 그들과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친교와 확장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③ 삶의 모든 면에 걸친 계약적인 관계성을 포함하는 조직 : 이러한 것에는 수입의 분배, 예배, 삶의 다른 분야 등이 있다. 근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친교가 교회 선교의 새로운 개척 분야인 것으로 느껴 이러한 관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할렐루야 축구단이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적 상황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모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예인 교회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구조에 적합한 선교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개척의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다.

(4) 교회 행정 조직의 분류

각 교파의 교회들은 그 조직 체계를 성경에 근거함을 의무로 한다. 그 운영체나 직책의 명칭이나 용어 기원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성경에서 구한다. 그러나 수세기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그 시대의 요구와 문명의 변천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유사성과 함께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

① 에피스코팔 양식 (The Episcopal Form)

이 행정 조직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표본이 된다. 교황은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과 대주교와 주교를 교황이 직접 선출하고 그 교회들의 회의인 에큐메니칼 공의회(Eccumenical Council)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 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 큰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황을 보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② 프로테스탄트 감독 교회 (The Protestant Episcopal Church)

이 교회의 행정 조직은 감독의 선출을 3년대회 (Triennial Convention)에서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여 상·하 2개의 의회를 소유하고 있다. 즉 상원들인 감독 회의 (The House of Bishops)와 목사들과 신도의 대표로 구성된 하원 (The House of Deputies)이다.

③ 감리교회 (The Methodist Church)

감리교회 역시 얼마 전까지 감독 (Methodist Episcop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총회에서 감독 (Bishop)을 선출한다. 그러나 그것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상의 수반에 불과하며 감독 교회와 같은 감독으로 구성된 상원 (The House of

Bishops)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개혁파 교회 조직 (The Reformed System)

이 행정 조직은 순전히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이 행정 조직의 양식은 개혁 교회 (The Reformed) 여러 파, 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행정 구조가 그 표본이 되고 있다. 이 조직은 개체 교회의 통솔이 평신도들이 선출한 평신도 대표에 의해 행해진다. 그들은 임직될 뿐만 아니라 안수됨으로써 목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사실상 장로 교회나 개혁 교회의 특징은 장로 정치에 있다. 그들은 개체 교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며, 통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치리 기관의 회원이 되며, 신도를 대표하여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의 회의는 재단의 법적 권한을 장악한다.

⑤ 회중교 양식 (The Congregational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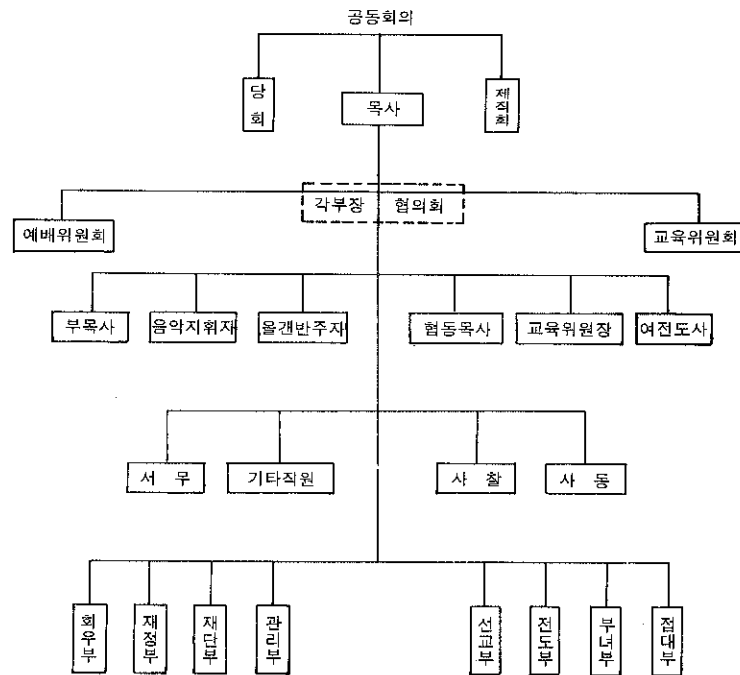
이 행정 조직은 회중 교회, 침례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교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행정 조직의 특색은 개체 교회의 독립 (Local Church autonomous)의 강력한 실천에 있다. 이러한 양식의 행정 체계는 전적으로 민주적이며 모든 사업은 회중 (Congregation)들에 의하여 위임된 위원회에서 관장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회중의 투표 없이 임직되지 않으며 개체 교회 이상의 어떤 상회 (Higher Judiciary)도 인정하지 않는 데 그 특색이 있다.

현대에 이르러 이 다양한 조직 양식을 각파가 그대로 고집하지 않으며, 보다 효율적 양식이라면 그것이 어느 교파의 것이든지 자기 교회의 행정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엄격히 말해서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행정 조직의 형태는 광범위하여지고 복잡해진 현대 교회의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너무나 기본 원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화된 사회와 제도화한 개인 생활의 구축, 그리고 현대 생활의 시

간적 제약, 유형을 가릴 수 없이 분화된 직업, 모든 수단의 기계화,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은 신도 간의 인간 교제의 친밀성의 결핍 등을 고려할 때 교회의 사명을 현대 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밀한 행정 조직과 관리 기술의 연구가 요구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는바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 1> 교회 조직의 모형



<표 1>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제직회와 당회가 신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시행할 권위를 가지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

교회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의 정확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조직이란 어원의 의미대로 바른 봉사를 위해 필요하고, 조직화도 이러한 의미와 연결되어야 한다.

현대 교회는 조직화되어가는 현 시대와 상황을 간파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실제적 능력을 갖춘 목회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과 환경이 유기적 함수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 조직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면서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직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것이다.